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 유지

-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충분한 대응역량 보유,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당부 -
-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추진 -
-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지속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8. 6.(화) 07: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박춘섭

지난 주 후반 미국 증시가 ①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②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③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④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주요지수 변동률(% 8.5일 장마감) : (美 나스닥) △3.43, (美 S&P) △3.00, (유로스톡스50) △1.45,
(韓 KOSPI) △8.77, (日 니케이) △12.40, (홍콩항셍) △1.46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되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 강화 및 대외 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유영철 (yye@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상주 (hipotes@fss.or.kr)